

노조, 직원인사이드에 불만

정기이동·승급 및 승진규약 등의 비효율성 지적

지난 3월 25일부터 발령된 16명의 '직원인사이드'와 지난 3월 1일부터 발효된 '교직원 승급 및 승진규약개정안'에 대한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직원노동조합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인사이드에 대해 '인사이드 기간이 늘어짐에 따라 학기초부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인사절차가 무

이수병 동문 추모제 거행

추모위 주최로 오는 16일 노천극장서

양캠퍼스 총학생회 및 동문추모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이수병(경제학과 졸업)추모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제15주기 이수병선생 추모제'를 거행한다.

이번 추모제는 75년 4월 9일, 박정희 독재정권이 조작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연루, 사형집행된 이수병선생의 자주·민주·통일의지를 널리 알리고,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 열린다.

9일부터 중간고사 오늘 시간표 발표

9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서울캠퍼스는 14일까지 수원캠퍼스는 1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중간고사 시간표는 오늘 각 단대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반대서명 연이어

총학생회·노조등도 성명서 발표

지난 16일 개정 통과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등의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반대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본교 직원노동조합은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재단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육의 주체들에게는 비밀로 한채 은밀히 심의,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에 우리는 개악된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그 어떤 회생에도 불구하고 뜻을

함께하는 교수, 학생과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대학의 존엄한 교원 자율권을 사수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이법의 위악은 재단결원의 강화로써 위장되어 있으나 재단의 비리와 실질적 지원의 권한을 문교부와 현 정치권력이 쥐고 있으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재단이 정권과의 결탁하에 또는 그의 묵인하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신감의 위기를 악화하여 성장해왔다고 할때 재단은 결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있지 않으며, 이

시청각교육원장 신규발령

출판국장·교육문제연구소장등 4명도

학교당국은 시청각교육원장 등 5명의 보직교수를 신규발령했다. 이번 임용된 교수는 다음과 같다.

▲시청각교육원장 겸 어학교육원장=박병수(문리대·영문)교수
▲중앙기생태소장=이원(문리대·화학)교수
▲출판국장=이광재(정경대·신방)교수
▲교육문제연구소장=송미섭(사범대·교직)교수
▲체육관장=고기재(체육대·체육)교수

중간고사관례로 2주간 휴간합니다.

움직이는 문제인만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직원 '승급 및 승진규약 개정안' 등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당국은 효과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향' 예산책정 난항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와 교직원지편집위원회 사이에 교지 예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생 1인당 학생자치회비 7천3백원 중 교지예산으로 책정된 1천3백원을 학생대중성의 결여, 예산집행의 은폐성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1천1백원으로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교직원지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자율권의 문제도대인 예산을 관여하여 편집자율권을 침해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자당 분쇄투쟁' 본격화

양캠퍼스 총학 교내집회 및 가두시위 가져

윤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이하 윤성총련)은 지난 28일 성남 상대원시장과 타워호텔 부근에서 본교생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자당분쇄 가두총보전'을 가졌다.

이번 집회에 대해 이기현(무역·4) 총학생회장은 "국민적인 3당 연합으로 민자당정권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두집회가 끝난후 윤성총련은 총학생회전세출과 공동행동정관리를 요구하며 3일째 단식농성중인 경원대를 방면해 지지시위를 벌였다.

서울, 오늘부터 장학생등록 실시

수원은 오는 4일과 6일 양일간

양캠퍼스 학생들은 1학기 장학금 지급, 본인도장, 학생증을 학생처에 제시한 후 장학증서를 수령하여 서울신탁은행 회계동지점에 등록하면 된다.

한울대상자는 장학증서를 학생처에서 수령하여 경리과에 제시한 후 환불받게 된다.

또한 수원캠퍼스는 오는 4일과 6일 양일간 장학생등록을 실시하며, 등록절차는 서울캠퍼스와 같다.

도서관 전자신문 설치

중앙 도서관은 지난 28일 2층 휴게실에 한국경제신문 멀티프레스(전자신문) 4대를 설치했다.

이번 전자신문 모니터설치는 선경그룹이 본교 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신문보다 빨리 최신정보를 받아볼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또한 이번 전자신문모니터는 공공장소용으로 정보수신만 할수있다.

원예학과 초청강연회

산업대학 원예학과는 오는 3일 오후 4시30분부터 체육과학대학 시청각실에서 '원예연구 특별강연회'를 실시한다.

원예작물 생산과 연구의 국내 동향이라는 주제의 이번 강연회에는 원예시험장장인 김정호박사가 강연할 예정이다.

인수인계 부실로 인해 사라진 총학 '복사기'

▼어느 두메산골에 '웅기'와 '종기'라는 두 마을이 있었다. 이 두마을에는 각각 한명씩의 이장이 마을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마을이장들이 열심히 사임을 하다보니 어느덧 이장이 빈자리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두마을의 사람들이 이장직을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 이 소식을 접한 두마을의 사람들이 이장직을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 이 소식을 접한 두마을의 사람들이 이장직을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

이 소식을 접한 두마을의 사람들이 이장직을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 이 소식을 접한 두마을의 사람들이 이장직을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 이 소식을 접한 두마을의 사람들이 이장직을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

'꽃향기로 가득한 뜨락' 같은 사회



꽃에는 향기가 있어 더욱 아름답듯이 우리 사회에는 예절이 있어 더욱 아름답습니다.

예절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또한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선 뿌연 거울을 먼저 닦아볼까요? 자신의 거울부터 닦아 보십시오. 소홀히 지나쳐 온 작은 예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쯤 이런 인사를 나누십니까?
"바쁜 세상에 뭘..."
"상대방도 하지 않는데 나만 굳이..."
혹,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꽃에는 향기가 있어 더욱 아름답듯이 예절을 소중히 하는 사회는 '꽃향기가 가득한 뜨락'처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절을 아끼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 사회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한정'과 예절을 소중히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 바로,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한정의 작은 바람입니다.

한국전력공사